

口碑 ‘治病說話’의 의미와 기능*

이인경**

1. 머리말
2. ‘治病說話’에 나타난 전승의식
3. ‘治病說話’의 의미와 기능
4. 마무리

1. 머리말

인류는 언제나 병마와 싸워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온 의료기술의 혜택으로 현대인은 자신의 선조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인간의 질병과 치료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治病說話’가 다양하게 구비 전승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口碑 ‘治病說話’에 투영된 질병과 건강에 대한 한국인의 문화전통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가운데 “212-3 병을 잘 고치는 명의” 유형으로 분류된 각편들이다. 또한 名醫라는 인물의 행적 서술에 초점이 놓이는 “명의설화”라는 용어 대신 환자의 치병 과정에 주목하는 “치병설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명의라는 神異하거나 예외적인 인물의 활약상보다는 질병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처했던 민중의 보편적 삶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함이다.

치병설화 연구의 선편을 잡은 연구자는 강진옥으로, 名醫譚을 대상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해가는 인물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설화를 분석하였다.¹⁾

* 본 논문은 2010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조교수(한국 문화와 문화 전략 연구소)

1) 강진옥,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 출판부, 1983.

그는 명의담은 인간능력에 대한 한계인식과 낙관적인 신뢰를 동시에 내포한다고 보고, ‘명의들은 기술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관념과 고정성을 벗어나 세계운행의 비밀까지 이해하는 열린 시선으로 인간의 문제를 응시하는 존재들’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의설화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포괄적이고도 선명하게 파악해냄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길라잡이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김명수는 ‘구비 명의전설’을 연구하면서 치료방법을 기준으로 설화를 정리하는 데에 주력하였다.²⁾ 이지연은 명의의 등장여부와 무관하게 ‘치병’을 제재로 한 설화작품을 대상으로, 전승자들의 과거의 병에 대한 생각과 삶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³⁾ 광의숙은 구전설화와 문헌설화를 망라하여 의료설화를 정리하고 거기에 담긴 상징성과 민중의식을 추출하였다. 방대한 양의 의료설화를 대상으로 의미해석을 시도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⁴⁾ 구현희·안상우는 설화에 나타난 명의 유의태의 의료인적 면모를 추적하였다.⁵⁾

선행연구를 통해 치병설화의 전승양상이 거시적으로 정리되고 그에 대한 의미해석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모두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한 반추와 회고라는 관점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첨단과학의 시대에 새삼 과거의 삶을 담은 치병설화에 주목해야 할까?

구비설화에는 전통의학에 기대어 살아왔던 과거 한국인들의 건강과 질병 및 치유에 대한 인식이 녹아 있으며, 이는 현대 한국인들의 의식을 여전히 구성하고 있다. 구비설화에 나타난 질병과 치료과정은 正統的인 韓醫學의 지식체계와는 전혀 무관한 황당한 虛構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면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치병설화 속에 깔린 민중의 인식론적 基底가 결과적으로 한의학의 기본사상이나 원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근대 이후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서양의학은 그간 동양의 전통의학이 담

2) 김명수, 「구비명의전설 연구」, 경산대학교 석사논문, 1997.

3) 이지연,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병관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4) 광의숙, 「한국의료설화 연구」, 동의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논문, 2008.

5) 구현희·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명의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 16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당해은 자리를 대신하여 오늘날 한국인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신의료장비로 무장한 최첨단 의료기술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서양의학에 자신의 온몸을 선뜻 내맡기지 못하는 것 같다.⁶⁾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지금 한국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⁷⁾

인간은 질병의 발생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따라 그에 대처하는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⁸⁾ 한국인의 병은 서양인의 병과 다르다. 한국인의 마음과 정신이 서양인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몸은 한국사회라는 특정한 문화공동체적 토양 속에서 배태되어 자생해온 문화적 구성체의 발현이기에,⁹⁾ 한국인의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한국인의 정신과 마음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근대를 경험하면서부터 한국의 전통문화와 고유한 삶의 방식은, 서양에서 전래된 과학문명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정당한 이유 없이 貶毀되곤 하였다. 한국의 전통의학도 예외가 아닌바, 은연중에 서양의학의 관점 즉 타자의 왜곡된 시선에 의해서 부당한 평가를 받아온 혐의가 짙다.¹⁰⁾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아무런 편견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공정한 시

6) “서양의학의 차가움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동양적 사유를 동경하거나 서양의학이 아닌 대안적 의료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강신익, 『몸의 역사 몸의 문화』, 휴머니스트, 2007, 168면.
 7)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은 자신에게 질병이 생길 경우 한방과 양방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한방을 택하겠다. 8.5%, 양방을 택하겠다. 12.6%, 병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78.9%” 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덕웅, 신체질병에 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 건강』 5집, 한국심리학회, 2000, 36-37면.
 8) 한덕웅, 윗글 참조.
 9) “어떤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몸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크게 의존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몸에 대한 개념 또한 다양할 것이며, 몸에 대한 보살핌인 의학의 존재양상도 다양할 것임에 틀림없다.” 강신익, 『삶과 삶으로서의 몸 : 동·서 의학에서 바라본 몸』, 『과학철학』 6집, 한국과학철학회, 2001, 55면.
 10) “병-치유의 방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심지어는 같은 시대 같은 문화권에서도 무척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과학적 의학의 시대에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병을 앓고 그것을 치유한다. 서구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조선, 중국, 일본 모두에서 전통의학은 당장 버려야 할 구시대 미신으로 여겨졌다.” 강신익, 『건강은 없다 : 복잡성의 진화와 의학』,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윌름), 『인문의학, 인문의 창으로 본 건강』, 휴머니스트, 2008, 21면.

각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¹¹⁾ 한국인의 몸과 정서를 고려한 최적의 의료를 구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치병설화에 나타난 ‘질병에 걸린 몸’이란 건강을 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포괄하는 은유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¹²⁾ 즉, 인간의 신체든 사회적 질서든 완전한 조화와 균형이 깨진 부자연스럽고 불만족스런 문제 상황이 ‘질병에 걸린 몸’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치병설화에는 그런 부조화와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설화 전승자들이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을 추론해 가던 사고와 인식 과정을 엿보게 된다.¹³⁾

치병설화에 나타난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식은 물질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심리적, 도덕적,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될 만한 요소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치병설화가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인간의 신체적 통증과 그것의 치료’로 수렴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왜 생겨나며 인간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물음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치병설화는 인간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 병이 생겨나며, 그것을 치유하려면 인간의 지극한 정성과 자기절제 그리고 도덕적 성찰이 요구된다는 점을 역설한다. 따라서 치병설화 연구는 기존질서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규범을 반추하고 더 나아가 그것의 顛覆을 시도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¹⁴⁾

11) “우리가 서양의학과 동아시아의학을 비교함으로써 무언가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서양의학만이 예외적으로 과학적인 것이며 가장 보편적 진리라는 가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서양의학도 한의학 등 다른 의학 체계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되어 온 특성의 의학체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양의 생의학과 동아시아의학이 근거하고 있는 몸의 존재론을 비교하는 일은, 먼저 그 두 가지 의학체계를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강신익, 『삶과 삶으로서의 몸 : 동·서 의학에서 바라본 몸』, 『과학철학』 6집, 한국과학철학회, 2001, 58-60면.

12) “의료설화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신체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전체로서의 삶의 취약함과 부조화를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곽의숙, 앞의 글, 73면.

13) 강진욱, 앞의 글, 598면.

14) “몸은 과학적 사실과 인문학적 가치와 의미가 만나는 공간이다. 과학은 사람의 몸을 기계로 여기고 인문학은 사람의 마음속에 녹아 있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말하지만, 의학은 사람의 몸속에 담긴 과학적 사실과 인간적 가치를 함께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의학은 질병현상이라

요컨대 치병설화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분석은 이처럼 매우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측면에서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구비 ‘치병설화’ 각편의 개별적 의미를 해석하여 이에 담긴 전승의식을 추출함으로써, 생명, 건강, 질병, 치료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적 태도와 인식을 거시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治病說話’에 나타난 전승의식

2.1.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해와 순응

치병설화에는 수많은 명의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명의는 과연 누구일까? 그건 아마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의원일 것이다. 아래 설화에는 그런 神醫가 등장한다.

- (1) 어떤 명의가 길을 가다가 죽은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명의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다(혹은, 아이가 간이 떨어져 죽었는데 같이 놀고 있던 아이가 그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을 받아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한다). 이에 명의는 침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침으로 간이 떨어져 죽은 아이의 간을 이어서 살린 다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 말하게 하여 오해를 풀었다(아이의 누명을 벗겨서 살려 준다). 그리고 나서, 명의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침을 빼서 다시 죽게 하였다.¹⁵⁾

는 애매한 영역에서 출발해 사실의 영역과 가치와 규범의 영역을 가로질러 새로운 사실,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창조한다. 과학과 인문학의 ‘사이’에 존재하면서도 새로운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강신익, 『몸의 역사 몸의 문화』, 휴머니스트, 2007, 6면.

15) 『구비대계』 5-4, 170면, 화타 변작, 송경재 구연; 『구비대계』 1-1, 798면, 초산탕 초하침, 강성도 구연.

死因이 밝혀지자, 명의는 침을 도로 빼서 죽은 자를 저승으로 돌려보낸다. 이는 醫術이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天命을 거역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¹⁶⁾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명의가 정작 살려내고 싶었던 것은 ‘죽은 자의 몸’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살아있는 자의 생명’이었다는 사실이다. 명의란 죽은 자를 살려내는 神術(재주)을 터득한 才人이기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仁術人이어야 하는 것이다.

(2) 가난한 선비가 십 년을 기약하고 스승에게 의술을 배웠다. 8년이 지났을 때, 한 노파가 어린 유복자가 배앓이를 한다며 스승을 급히 찾았다. 스승이 외출한 터라 선비가 대신 병을 고칠 약초를 알려 주었다. 얼마 후에 노파가 죽을 자식을 살려주어 고맙다며 술과 닭고기를 가지고 왔다. 선비가 그것을 스승께 드리자, 스승은 “내가 왜 積惡을 하나?”라며 거부했다. 까닭을 묻자, 유복자는 노파와 전생에 원수가 저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므로 그 낭 죽게 놔두었어야 했다면서, 유복자가 앞으로 삼십 년 동안 살면서 노파를 괴롭힐 것이므로 선비가 적악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구비대계』 4-3, 137면, 명의 허준, 이용정 구연

위 설화는 의원이란 모름지기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라는 통념을 뒤흔든다. 병을 고치는 의술을 터득했다고 하여 곧 의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의술을 제대로 익히려면 십 년-상징적인 年限일 것이다-의 수련기간이 필요한데 2년을 마저 채우지 못한 修鍊醫가 그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살려주는 실수를 범해서 책망을 듣게 된다. 스승은 의원이란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에 개입할 때 분별력 있게 처신해야 함을 역설한다. 명의가 되려면 인간의 전생과 미래를 꿰뚫어보아 개인의 운명까지 통찰하는 지혜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醫術이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섭리

16) “죽었던 사람을 침으로 살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천명을 움직일 수 없다는 하늘존중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지연, 앞의 글, 14면.

에 역행함으로써 자칫 우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인간의 운명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런 설화적 논리는 전승자들에게 실제로 가족이 병으로 죽었을 때 그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쉽게 체념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운명론적 사고를 基底로 전개되는 아래 설화에서는, 의원이 개입함으로써 개개인의 운명에 고통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보로 의원은 일찍 죽게 된다.

- (3) 어떤 여인이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명의를 찾아갔다. 명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인이 친정에 다녀오면 치료약을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친정으로 가던 중 여인은 능금장수를 만나 겁탈을 당하였다.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 능금장수가 죽어있었다. 명의는 이미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여인에게 상부살(喪夫煞)이 끼어 남편이 아팠던 것인데, 여인을 겁탈한 남자가 대신 죽었으므로 남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의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으니 그 죄를 받겠다고 하였다. 명의는 7년 후에 죽었고 여인의 남편은 수십 년을 더 살았다.

(『구비대계』 1-6, 522면, 남 살리고 대신 죽은 명의, 유병식 구연)

위 설화는 喪夫煞을 지냈기에 남편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여인을 통해, 生死에 얽힌 인연과 운명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야말로 人命在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불운을 피해갈 공리를 하기 마련이다. 죽을 운명인 사람을 살려주려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이 설화의 논리인데, 결국 의원은 여인의 남편이 당면한 ‘죽을 운명’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킨다.

능금장수의 죽음은 여인을 겁간한 죄에 대한 응보인 셈이고, 여인의 남편은 아내의 상부살로 인해 억울한 병고를 겪은 것이므로 마침내 희생할 수 있었다. 여인이 능욕을 당한 것은 상부살이라는 애꿎은 운명을 타고난 원죄 때문일 것이다. 의원은 자신이 결국 죽게 될 줄 알면서도 굳이 여인의

남편을 살리는 처방을 내려준다. 여기서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부살이 낀 아내를 얻은 탓에 죽을 운명에 처한 남자를 살려주는 의원의 선택은 어찌 설명될까? 이는 억울한 이의 죽음을 막고 소중한 人命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의원이 될 수 있다는 전승자들의 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

이 설화는 다양한 논란거리를 제공한다. 우선 남편의 病苦는 아내의 불운한 운명 탓으로 歸因해버리는 부조리한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사실 그런 운명론에 입각해서 판단한다면 어떤 여성과 혼인하게 되는가도 역시 그 남성의 운명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또한 비록 불가항력적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남편의 救命을 가져온 일이지는 하지만, 여인의 失節행위가 어떤 도덕적 비난도 받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내의 정절은 남편의 구명을 위해 충분히 희생될 수 있다는 이 가치관은, 여성의 정절을 지고한 가치로 提高하는 열녀설화¹⁷⁾의 전승의식과는 판이한 것이다. 이 설화는 이념이나 사회윤리 같은 추상적 가치에 앞서 인간의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명지상주의를 보여준다.

2.2. 病因에 대한 무속적 이해와 대응

옛날에는 천연두나 홍역이 자주 창궐하였으므로, 마마(역병을 의인화하여 높여 부르는 딸)가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병에 걸린 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별상굿을 하였다.¹⁸⁾

(4) 어떤 청년이 명의를 찾아와 눈알이 빠지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였다. 명이가 치료법을 몰라서 고민하던 중에 편작이 나타나 말하기를, 천귀라는 귀신과 자신이 명승을 다투었는데 천귀가 다투에서 패배한 원한을 명 의한테 풀러 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암자에 가서 제일 큰 부처 밑에

17) 이에 대해서는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월인, 2006 참조.

18) 별상신은 호국에서 온 마마를 다스리는 여신을 뜻하는데, 이때 질병에 마마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병을 옮기는 신에게 높임말을 씌으로써 신의 노여움을 덜어내려는 呪術的 사고를 보여준다.

있는 견명주사(결명주사)를 가져다 청년의 눈에다 부으라고 하였다. 명의가 그대로 하자, 천귀가 떨어져 나왔다. 천귀는 자신이 편작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명의에게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구비대계』 7-1, 186면, 명의 유이태, 김원락 구연)

위 설화에서는 청년이 귀신의 장난으로 눈알이 빠지는 병을 앓게 되자, 귀신을 물리치는 붉은 색 염료인 결명주사를 사용해서 병을 치료한다. 여기서 암자의 제일 큰 부처가 등장한 것은 무속신앙에 불교적 색채가 덧칠된 결과이다. 이 설화에서 편작은 귀신과 겨루어 능히 제압하는 영험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이런 神醫 편작에게서 무당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바, 醫學의 기원이 무속에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¹⁹⁾

전통사회에서 하층민들은 한의학적 지식을 갖춘 의원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웠기에 굶과 같은 무속에 주로 의지해야 했다.²⁰⁾ 민간신앙에서 질병이란 귀신이 인체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므로,²¹⁾ 푸닥거리나 제사와 같은 방식으로 귀신을 달래고 쫓아내고자 하였던 민중들의 치병의식이 설화에도 드러나 있음을 본다.

아래 설화는 아주 흥미로운 치병 방법을 보여주는데,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낳는다.’는 類感呪術的인 발상이 나타난다.

19) 張基成, 정창현 외 옮김, 『한의학의 원류를 찾다: 易學과 韓醫學』, 청흥, 2008, 52면; “巫가 사용한 치병의 방법은 주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기도와 달램(치병굿), 그리고 부정적인 외적 존재를 떨쳐내는 주술 등이었다. 巫醫는 귀신의 빌미를 잘 파악하고, 화해와 퇴출의 방법을 의례적으로 소화해낼 줄 아는 치병전문가였다. 모든 질병의 원인을 귀신에게 돌리고, 감정을 가진 귀신을 상정하고 신에게 기도하거나 신을 달램으로써 병의 빌미를 해소하는 의례가 巫에 의해 주도되었다.” 최종성, 「儒醫와 巫醫 -유교와 무속의 치유-」, 『종교연구』 26집, 한국종교학회, 2002, 155면.

20) 정민성, 『우리 醫藥의 역사』, 학민사, 1990; 류성민, 「종교적 질병 치유의 사회·문화적 의미-한국종교의 치병의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5집, 한국종교학회, 2004; 이정숙, 「고려시대 전염병과 치병의례」, 『이화사학연구』 34집, 이화사학연구소, 2007 참조.

21) “옛 의서의 언해본에서는 병을 동사로 쓸 때 예외 없이 ‘병흐다’로 옮기고 있다. 병에 걸리거나 병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오히려 무속적 기원을 갖는 것으로 본다. 무속에서는 ‘요사스러운 것’이 들어와 병을 일으킨다고 본다. <중략> 한의학보다 더 뿌리 깊은 우리의 문화적 배경인 무속에서 병은 요사스러운 것의 침입이다. 이 요사스러운 것은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너무나 닮았다.” 강신익, 『몸의 역사 몸의 문화』, 휴머니스트, 2007, 165면.

- (5) 어떤 사람이 담이 들었는데, 추명이 처방하길 축담의 흙을 달여서 먹으면 된다고 하였다. 축담은 담을 쫓는 기인데 뒷마루와 마당 사이의 축담과 발음이 같으므로, 그것을 달여 먹으면 낫는다고 한 것이었다.

(『구비대계』 8-2, 403면, 추명의 일화(담 처방), 이인진 구연)

담(痰)이 들었다는 말은, 한의학에서 몸의 분비액이 큰 熱을 받아서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는 담을 쫓아내는(逐出하는) 氣는 바로 축담(逐痰)이므로 이것과 同音異議語인 축담(築담)²²⁾을 달여서 먹으면 병이 낫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유감주술에 대한 신뢰가 깊은 전승자라면 귀가 솔깃할 만한 치료법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설화가 오늘날까지 전승되어온 것은 무엇보다 동음이의어의 절묘한 사용을 통한 기발한 치료방법이 커다란 재미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2.3. 자연운행과 사회질서에 대한 유비적 인식

- (6) 獨子を 둔 집에서 아이가 계속 유산(난산)이 되었다. 추의를 찾아가 해결책을 묻자, 장기의 졸(卒) 字를 삶아서 산모에게 마시게 하라고 하였다(혹은, 이슬을 받아먹으라거나, 대문의 고리를 주면서 달여서 먹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자 곧 아이가 생겼다(순산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른 사람이 그 방법을 똑같이 써봤는데, 약효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의에게 그 이유를 묻자, 졸(卒) 자는 앞으로 밀고나가는 것이라서 저녁때에는 이슬이 붙어서 효과가 있지만 아침엔 이슬이 떨어지는 때라서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혹은, 문을 열 때의 문고리는 순산을 하게 되지만 문을 닫을 때의 문고리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²³⁾

22) 축담이란 막들에 흙을 섞어서 쌓은 돌담을 말한다. 이때 “담”은 한자어가 아닌 순수어이다.

23) 『구비대계』 8-2, 358면, 추명의 일화(낙태 막는 처방), 김경택 구연 ; 『구비대계』 8-2, 379면, 추명의 일화(낙태 막는 처방), 성병용 구연 ; 『구비대계』 8-2, 403면, 추명의 일화(순산하는 처방), 이인진 구연 ; 『구비대계』 8-2, 404면, 추명의 일화(순산하는 처방), 김달규 구연.

동양인에게 우주란 상호독립적인 개체들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는 하나의 場으로 이해된다. 우주 안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물들 사이에도 서로 힘이 작용하여 共鳴을 일으킨다고 믿는 것이다.²⁴⁾

이 설화는 자연계의 이슬과 산모의 분비액인 이슬을 類比하여 동일시하는 思惟를 보여준다. 또한 將棋의卒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뿐 뒤로 물러나지는 못한다는 규칙에 착안하여 태아의 유산을 模擬적으로 막아내는 처방을 내린다. 그런가 하면, 집의 대문에서 여성의 下門을 그리고 아침에는 열렸다가 저녁에는 닫히게 되는 대문의 속성에서 인간의 출산과정을 유추한 후, 자연의 이치를 적용하여 임신부의 순산을 유도해내고 있다. 이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우주질서의 유기적 관계망 안에 있다는 전승자들의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설화의 말미에 의원의 순산 처방을 무턱대고 따라했다가 실패하고 마는 사례가 첨부되어있는데, 이는 장기 째(卒)이나 문풍지 같은 특정 물질(藥劑)의 사용이 순산을 돕는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기계적 처방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 개개인의 삶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주유행의 질서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통찰함으로써, 거기에 잘 순응할 때에만 약효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유의태가 장기를 두고 있는데, 이방이 찾아와서 자기 아내가 난산 중이라며 도움을 청했다. 유의태는 종이에 무언가를 써주면서 그것을 태운 후에 물에 타서 아내에게 먹이라고 하였다. 이방은 초라한 처방에 섭섭했지만 그대로 행하였고, 산모는 순산하였다. 그 종이에 뭐라고 썼는지 묻자, ‘본관의 성명 세 글자’를 적었다면서, 이방의 뺏속에 본관이 들어가는데 이방의 자식이 뛰어나오지 않고 견디겠느냐고 하였다.

(『구비대계』 8-10, 200면, “명의 유희태(1)”, 남길우, 남, 67세 구연)

24) 동양적 사유의 특징에 대해서는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옮김,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참조.

위의 설화에서는, 난산 중인 산모에게 남편의 上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태워 먹임으로써 출산을 촉진하는 처방이 등장한다. 사회적 위계질서를 태아의 출생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위계질서가 생명의 탄생과정에 까지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산모의 몸 그리고 모태 안에 있는 태아의 몸은 외부와 단절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즉 산모는 산고를 겪는 몸이라는 실존 이전에, 이방의 아내라는 종속적 존재로서 이해된다. 태아 역시 모태 안에서 이미 이방의 자식이라는 귀속지위를 부여받아 위계질서에 복종하는 사회적 존재로 규정된다. 이런 설화들은 인간의 건강상태란 몸을 둘러싼 주변의 복잡한 맥락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²⁵⁾

2.4. 맞춤형 치료와 자발적 섭생

아래 설화에서는, 의원은 환자의 고유한 체질과 특수한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고 약재의 성질을 잘 파악한 연후에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흔히 “머리 아플 때엔 00약!”이란 식의 표준화된 약 처방을 경계하는 것이다.

- (8) 의원이 출타한 사이에 그 집 며느리가 마음대로 이웃에게 약을 내주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며느리에게 침을 놓아서 한 달 동안 말을 못하게 하였다. 의원이 며느리에게 다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며느리가 준 것은 이슬인데, 내릴 적의 이슬을 내주었으니 망정이지 잘못해서 오를 적의 이슬을 내주었으면 병자가 죽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없을 때에 절대로 약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구비대계』 2-8, 246면,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한준혁 구연)

25) “동아시아의 몸은 물질적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場, 사회와 세계와 우주의 場과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뒤섞이기도 하는 하나의 場으로 존재한다.” 강신익, 「앞과 삶으로서의 몸 : 동서 의학에서 바라본 몸」, 『과학철학』 6집, 한국과학철학회, 2001, 65면.

현대의 과학적 연구는 보편규칙, 일반성, 공통성을 찾으려고 한다. 오늘날 기업적 효율성의 제고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현대의학 역시 치료방법의 객관화와 표준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²⁶⁾ 그러나 한의학은 환자의 개개인의 개성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때그때 처방을 내리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치료방법을 지향한다.²⁷⁾

(9) 어릴 적 동문수학하던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어의가 되고 한 사람은 대단한 갑부가 되었다. 어의가 고향에 들렀다가 갑부인 친구의 晚得子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어의는 생강을 달여서 먹이라고 하였다. 어의는 갑부가 아들을 귀하게 여겨 매일 꿩고기를 먹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꿩고기의 독을 치료하는 생강을 먹이게 한 것이었다. 환자의 병이 나았다.

(『구비대계』 2-4, 349면, 어의의 욕감, 박용성 구연)

위 설화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눈으로 확인하는 객관정보만이 아니라 일련의 사태를 통찰할 수 있는 직관력 역시 요구됨을 보여준다. 어릴 적 친구였던 두 사람이 하나는 御醫가 되고 하나는 큰 富者가 되어서 해후하게 된다. 화자는 이 설화에서 어의가 된 친구의 사회적 위치와 권력이 상당함²⁸⁾ 부자인 친구의 재산규모가 엄청남을 강조한다.²⁹⁾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욕심을 부리게 된다. 땅, 재물, 명예, 권력 등에 대한 소유욕과 자식에 대한 집착이 늘어가기 마련인 것이다. 이 친구가 갑부가 된 것은 아마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늘그막에 아들을 얻자, 자식사랑이 지나쳐 꿩고기를 과도하게 먹이는 바람에 화를 불러오고 말았다. 갑부의 과욕이 화를 부른 이 사건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지나친 애정표현이 낳은 불상사 정도로 이해될 성

26) 버나드 라운, 서정돈·이희원(옮김),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 몸과 마음, 2003, 11면.
 27) “한의 입상은 제현 불가능한 부분이 많고 주관성과 임의성이 너무 강하다. 개성화가 강하여 객관화, 표준화, 규범화가 어렵다.” 張基成, 정창현 외 옮김, 앞의 책, 501면.
 28) “어의라면 말이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참, 권리가 상당했습니다. 뭐 사린교 타고 말이죠, 아주 뭐 날날이 잡히고 길루 갈 적에 행상할 적에는 기가 맥헌데.” 『구비대계』 2-4, 349면.
 29) “부자 사람은 뭐, 어마어마한 부잔데, 수만 석 하는 부잔데.” 『구비대계』 2-4, 349면.

질이 아니다. 보다 사회적이며 도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전에 지주라면 말이요, 썩도 갖다, 뭘, 닭도 갖다 주고, 뭘, 귀한 건 자주 갖다 주지요. 그러니 자네가 부자니 썩이 술술 참말로 들어왔을 끼야. 그걸로 막댕이 아들이 귀하다고 만날 썩고길 맥였을 끼 아니야?”³⁰⁾

화자의 위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갑부가 부를 창출해간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데, 땅을 많이 사들여 소작농에게 임대함으로써 재산을 불려갔던 것이다. 소작농들은 토지경작권을 잃지 않으려고 지주에게 닭이나 썩 같은 귀한 것을 뇌물로 자주 바쳐야 했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굶주림과 늘 싸워야 했던 전통사회 민중들에게, 썩고기는 참으로 귀한 것이어서 여간해서 먹기 어려웠을 터이다. 그런데 이런 썩고기를 누군가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부조리한 세상이 펼쳐진다.

자신도 권력의 맛을 경험하였기에 어의는 갑부의 그런 삶을 이미 충분히 통찰하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달리 특이할 것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부자들의 전형적 삶이었던 것이다. 소유욕과 집착이 강한 친구가 이웃의 굶주림을 돌보기보다는 晩得子에 대한 집착과 과잉보호에 골몰했을 것임을 어의는 쉽게 간파하였던 것이다.

이 설화는 이웃과 나누어먹으면 굶주림을 면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썩고기이지만, 이를 독점하고 과식하게 되면 독이 되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탐욕에 대한 자기절제와 自己愛를 넘어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인간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래 설화에서는 갑자기 생선회를 많이 먹고 탈이 난 사람의 사연이 전개된다. 평소 서울에 살면서 별로 먹어본 적이 없는 회를 해안지역인 여수에 가서 폭식을 하게 되면서 병이 난 것이다. 인간의 몸은 자신이 밭을 딛고 있는 땅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그야말로 身土不二인 것이다.

30) 『구비대계』 2-4, 350면.

(10) 여수의 수군통제사가 된 사람이 소화가 안 되어서 명의를 찾아갔다. 명이는 한창 더운 오뉴월에 자기 집으로 찾아오면 병을 고쳐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병자가 오뉴월에 멀리까지 명이의 집을 찾아서 갔는데, 명이가 일부러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병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화를 내자, 그때에 명이는 병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다. 병자가 중앙정부에 근무할 때에는 잘 먹지 않던 생선회(준치)를 갑자기 많이 먹어서 비늘(가시)이 목에 걸려 병이 났다고 판단한 의원은,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게 해서 생선 비늘이 잘 내려가게 한 것이었다. 의원은 이제 약이 필요 없다며 병자를 돌려보냈다.

(『구비대계』 6-12, 1029면, 명의 김동의, 김동진 구연)

명이는 환자가 갑작스런 식생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병이 생긴 것임을 통찰한다. 病症에 주목하기 전에 환자의 섭생에 일어난 부조화부터 살핀 것이다. 이 설화는 약을 처방하지 않고 환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³¹⁾ 의원의 일방적 치료보다 환자의 자기조절과 자가 치유능력을 촉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보여준다.

3. ‘治病說話’의 의미와 기능

3.1. 仁術의 인도주의 정신 제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의원들은 모두 宮中御醫였다는 점에서 일반민중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名醫는 고사하고 한의학 지식을 갖춘 의원에게서 진료를 받는 일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제대로 공부한 의원들은 주로 양반계층의 건강을 돌보는 데에 종사했기 때

31) “나는 내직에 있으면서 중앙 정부에 있으면서 요런디 해변에 와서 회 같은 걸 안 먹었다. 안 먹고 그란디 어른들이 해변에 오니까 니가 조금 높으다 그래가꼬 줄개들이 고기회도 해 주고, 뗏도 해주고 그래가꼬 딱 그 고기 비늘이. 비늘이 식도에 가 걸렸다 그것이어. 거그는 아무리 무슨 약을 해도 소용이 없어. 아까 물로 딱 씻어부렸은께 인자 가면 암시랑토 않다. 가거라.” 『구비대계』 6-12, 1032-1033면.

문이다. 백성들이 名醫를 만나게 되는 것은 명의가 서울을 떠나 유람을 다닐 때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였음을 설화에서 확인하게 된다.

(11)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려고 모든 방법을 써 보았으나 병이 낫지 않았다. 가족들은 어떤 유명한 명의(편작, 유의태, 이경하)가 아니면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그 명의를 만날 수 없어서) 맹물을 담은 그릇에 명의의 이름을 붙여 병자에게 마시게 했다. 명의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명의는 신분을 밝히고 병자를 치료해 주었다.³²⁾

옛날에 의원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백성들이 각종 민간요법이나 무속신앙에라도 의지함으로써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딱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병마라는 악귀가 두려워하는 명의의 이름에 의지해서라도 병을 물리치고 싶었던 간절한 염원이 느껴진다.

‘감히 이경하탕’이라는 제목이 붙은 白沸湯(맹물을 끓인 것)을 보게 된 명의 이경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궁금해진다. 의원이란 모름지기 사람을 ‘널리’ 사랑하는 仁術을 펼쳐야 한다는 진지한 자기성찰을 되새기지 않았을까. 부귀빈천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12) 우암 송시열이 병에 걸리자, 자제로 하여금 미수 허목에게 가서 약을 지어오도록 시켰다. 우암과 미수는 국사에 있어 서로 다른 당파에 속해 있어서, 우암의 자제가 보기에 미수가 약을 지어주지 않을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미수를 찾아갔다. 미수는 비상 세 돈쥬를 먹고 등을 세계 치라고 처방하였다. 그러나 자제는 미수를 믿지 못하고 비상을 두 돈쥬만 먹고 등을 약하게 쳤다. 우암은 병이 좀 나아지는 듯하였으나, 미수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몇 해가 지나 죽고 말았다.

(『구비대계』 1-1, 66면, 송우암(宋尤庵)과 허미수(許眉叟), 안병초 구연)

32) 『구비대계』 7-2, 130면, 유의태탕, 박동준 구연 ; 『구비대계』 1-4, 398면, 감히 이경하탕, 최영길 구연.

동양에서 의원이란 그저 병을 고치는 기술을 지닌 자가 아니라, 인도주의에 철저한 덕성을 갖춘 도덕적 행위자로 인식되어 왔음을 위의 설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³³⁾

이 설화는 비록 자신의 정적일 경우에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仁術을 펼치는, 의원으로서의 투철한 직업관과 윤리의식을 엿보게 한다.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과 남인의 선구인 허목은 각기 다른 당파에 속한 政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시열은 허목에게 자신의 약을 지어오게 하였고, 허목 역시 송시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직한 처방을 내린다. 그러나 송시열의 아들은 이들과 같은 쌍방적 신뢰를 갖고 있지 못했다. 결국 송시열은 병을 완전히 고치지 못하고 죽고 만다.

“허허, 그것은 국가 정치에는 다름지언정 친구 간에 아파서 약 지러 가는데 무슨 상관있냐? 가서 약 지어오라.”³⁴⁾

“그 옛날 사람들이 원수고 서로 미워도 말야. 글과 약은 지대로(제대로) 지어 준다는 기어.”³⁵⁾

근게 대인은 사람을 의심허들 안 허. 소인들이 그러지. 하여튼지 병에 해당 허닌게 씨라고 했지 그 놈 먹고 죽으라고 지어준 약은 아니거든. 정치 같은데 허지만 정치가 아니거든.³⁶⁾

위와 같이 화자들은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바, 생명은 정치적 利害關係나 私的 원한을 넘어선 숭고하고 존엄한 가치라는 것, 그래서 의학은 본질적으로 정치와 달리 정직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의원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만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3) “동아시아 전통에서 의사는 사람의 몸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그 지식을 내재화한 도덕적 행위 주체로 표상된다.” 강신익, 『몸의 역사 몸의 문화』, 휴머니스트, 2007, 117-120면.

34) 『구비대계』 5-5, 577면, 송우암(宋尤庵)과 허미수(許眉叟), 전병옥 구연.

35) 『구비대계』 1-1, 68-69면.

36) 『구비대계』 5-5, 578면.

이 설화는 조선시대의 유력한 정치가로서 대청점에 위치했던 송시열, 허목 두 사람 모두에게 경외의 눈빛을 보내게 만든다. 그들은 정치논리로 인해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 大人의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사육의 정치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仁愛의 정치였을 거라는 기대마저 불러일으킨다. 두 사람은 당시에 공자의 仁을 숭상하는 유학자였으며, 民本主義에 바탕을 둔 愛民과 德治의 정치를 표방한 정치가였을 것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仁德濟世와 仁術濟世의 의원의 삶, 더 정확하게는 上醫의 삶이어야만 했던 것이다.³⁷⁾

그러나 이 설화는 송시열의 죽음에서 보듯이 上醫로서의 이들의 삶이 실제로 끝났음을 암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들이 몸 담았던 정치현실은 모략과 불신으로 얼룩진 ‘병든 삶’이었던 것이다.

3.2. 환자에 대한 공감과 정서적 소통의 강조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서적 안녕 상태이며 영적인 안녕 상태이기도 하다.³⁸⁾ 건강은 몸과 마음 모두가 평안한 상태이어야 함을 아래의 설화에서 확인하게 된다.

- (13) 어떤 留守가 부친을 모시고 到任하게 되었는데, 부친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명의를 찾아갔다. 명의를 유수의 부친이 고향을 떠나와서 이는 사람이나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다가 병이 난 것이라며, ‘歸鄉’이라는 처방을 내렸다. 고향으로 돌아간 부친은 자연히 병이 낫게 되었다.

(『구비대계』 1-5, 54면, 이룸난 의원, 이병원 구연)

37) “전통적으로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일, 사람을 구해내는 일, 세상을 다스리는 일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로 삼았고, 이것으로 의사의 우열을 평가했다. ‘上醫는 나라를 고치고 中醫는 사람을 고치며 下醫는 병을 고친다(『備急千金要方』「診候」)’고 한 것이다. 백성들을 인애한다는 관점에서 의학과 유학의 둘은 공동의식을 갖는다. 의학이 수행하는 治病·救人·濟世의 기능이 의술이 인술로 불리는 까닭이다.” 임은, 문제곤 역, 『한의학과 유교 문화의 만남』, 예문서원, 1999, 94-95면.

38) 손정락, 「신뢰와 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집, 한국심리학회, 2005, 90면.

노후의 삶은 주로 자식의 삶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자식의 봉양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식의 생활조건에 맞추기 위해 노인의 자유나 욕망이 억제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관으로 근무하는 아들을 둔 노인이 가난으로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어져 병에 걸리는 일은 아마 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노인은 병에 걸리고 말았다. 환자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알았던 의원은 정서적 고립이 병의 원인임을 밝히고 노인을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마음의 병에는 百藥이 무효하기 때문이다.

(14)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지관이 나타나 그의 가슴이 명당이라며 거기에다가 뿔자리를 쓰는 것이었다. 꿈을 꾸 사람은 병에 걸리게 되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의원은 먹을 갈아서 병자에게 먹였다. 그 후 병자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 그 지관이 나타나서 ‘여긴 캄캄해서 묘를 옮겨야 된다.’면서 묘를 옮겨갔다. 병자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병이 낫게 되었다.

(『구비대계』 2-4, 347면, 마음의 병을 치유, 함기문 구연)

(15) 어느 날 새댁이 친정에서 꿩 한 마리를 받아 집으로 오던 중에 근처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다. 옆드려서 물을 마시던 새댁은 물에 비친 꿩의 꼬리가 뱀의 꼬리인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이 샘 속의 뱀을 먹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새댁은 그 후에 배가 계속 아파서 한의사를 찾게 되었다. 의사는 뱀 한 마리를 잡아다가 새댁 몰래 요강에 넣고는 새댁에게 그 요강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 그리고는 요강의 뱀을 보여주며 소변으로 그 뱀이 나왔다고 하였다. 새댁은 요강 속의 뱀을 보고 안심했고, 새댁의 복통 또한 없어졌다.

(『구비대계』 1-6, 473면, 꿩 꼬리를 뱀으로 착각한 새댁, 지금송 구연)

위의 설화들에서는 마음의 병이 몸에서 큰 병으로 발전하는 사연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될 수도 질병이 생기거나 치료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心身一體인 것이다.

악몽을 꾸거나 혹시 착각 때문에 병이 난 환자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건 그저 꿈일 뿐인데 멀쩡한 사람이 왜 그만한 일로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나?”라며 이상한 시선으로 보기 십상일 것이다. 이처럼 “너 미쳤어? 샘물 속에서 무슨 뱀을 먹게 되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라고 반응한다면, 환자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환자는 정서적으로 철저히 고립되면서 병이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런 까닭에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을 치료하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보통사람이라면 환자의 소심함을 가볍게 비난하거나 잘못된 망상을 얼른 교정하려고 성급히 나서기 쉬운 상황에서, 명의는 환자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절묘한 처방을 고안해 낸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긴 불안 증을 오히려 그 믿음을 역이용하여 해소시켜주는 것이다.

이 처방은 현대의학의 僞藥效果(플라시보 효과)에 해당한다.³⁹⁾ 환자에게 심리적 효과를 얻게 하려고 주는 가짜 약인 위약은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에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여기서 의원의 처방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환자가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준 의원에게 진정성을 느껴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 환자들은 각자의 신념체계나 무의식에서 기인한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꿈이란 미래를 예지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에 묘를 쓰는 흉몽은 죽음을 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마련이다. 의원은 흉몽을 무효화하는 처방을 내린 것이다.

한편 평의 꼬리는 실제로도 뱀의 모양과 많이 닮았기에, 샘물에 비친 평의 꼬리가 얼마든지 뱀으로 보일 수도 있다. 사실 여기서 새댁이 지닌 심리적 불안은 갓 결혼해서 경험하게 된 남편과의 性的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⁴⁰⁾ 굳이 이 설화에서 그런 착각을 하는 인물로 젊은

39) “플라시보(placebo)는 라틴어로 ‘나는 기뻐하리라’는 뜻이며, 그 반대는 노시보(nocebo)이다. 이 위약은 약물이라기보다 일종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의사에 대한 환자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자신의 면역체계와 치유체계가 충분히 기능을 함으로써 과정이 더욱 확장된다. 즉, 위약효과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의 질에 정비례한다. 신뢰받을 수 있는 의사의 능력, 의사의 존재 자체가 무엇보다 강력한 위약이다.” 손정락, 「신뢰와 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집, 한국심리학회, 2005, 91면.

40) 전통사회에서 새댁은 사실 아주 어린 나이의 소녀였고, 이들에게 남편과의 性경험은 즐겁

새택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똥의 꼬리를 뱀으로 착각하는 것은,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도 놀라는 식일 수도 있다. 뱀은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사실 입으로 삼킨 뱀이라면 그것은 항문으로 통해 배출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러나 의원은 새택이 소변을 통해 뱀을 배출했다고 믿게 한다. 이는 性的인 이미지가 결부된 것으로 해석될 만하다.

인간은 자신이 대면한 세상을 재해석하고 기존의 생각을 수정해감으로써 삶을 새롭게 창조해가는 주체적 존재임을 이런 설화들을 통해 발견한다. 의원에게 최선의 치료란, 환자가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갈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신뢰를 주는 일인 셈이다.

3.3. 억압되고 은폐된 욕망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

(16) 명의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처녀를 보았는데 ‘곧 죽을 관상’이었다. 그래서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그 처녀를 살려주겠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명의는 가마솔에 참기름을 넣고 불을 댄 후 처녀를 알몸으로 가마솔에 앉게 하여 뜸질을 시키고 아무도 못 보게 하라고 하였다. 그대로 하였더니 지렁이가 한 솔 가득 빠져나왔다. 명의가 처녀에게 소변을 아무 데나 본 적이 있는지 묻자, 처녀는 그렇다고 하였다. 처녀가 소변을 보았던 자리를 창으로 찢었더니 피가 올라와서, 그곳을 파보니 창에 찢린 지렁이가 나왔다. 명의는 처녀가 함부로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아 지렁이가 소변을 타고 올라와 음기를 풀었기 때문에 아팠던 것이라고 하였다.

(『구비대계』 7-1, 186면, 명의 유이태, 김원락 구연)

처녀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지렁이는 알게 모르게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킨다. 처녀가 소변을 아무 데서나 보면 안 된다는 교훈은, 처녀가 쉽게 성

기보다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 이런 사정은 여성 생애담 연구를 비롯한 각종 민속학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다. 현진건의 소설 『불』은 조혼으로 인한 어린여성의 이런性に 대한 공포를 다루고 있다.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로 연결된다. 이 설화는 여성청자 특히 처녀들에게는 몸가짐을 잘 단속하라는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다.

한편 남성청자들에게는 여성의 배설장면을 연상시킴으로써 일종의 觀淫 症的인 욕망을 자극할 수도 있다. 性的 에너지가 충만한 젊은 여성, 특히 억압된 성적 욕망으로 뭉쳐있을 것만 같은 處女가 내뿜는 성적 매력은, 남성들에게 있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즉 처녀의 性は 위험한 것으로서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7) 통제사의 어머니가 병이 나서 추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다. 추의는 통제사의 어머니를 모욕하고 약을 올려서 마당을 뱅글뱅글 돌다가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추의는 어머니가 ‘젊어서 과부가 되어 동침을 못해서 병이 난 것’이라며, 이제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고 하였다.

(『구비대계』 8-2, 381면, 추명의 일화(청산과부병 처방), 김경택 구연)

청산과부의 채워지지 못한 성적 욕망은 다 늙어서까지 병으로 표출될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계속 억압되고 은폐되어야 했기에 더 맹렬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환자에 대한 추의의 처방은 상당히 맹랑한 것이었다. 환자를 마당으로 끌어낸 다음에 이불을 펴놓고, “성관계를 못해서 병이 난 년”이라는 비속어와 욕을 퍼부으며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 것이었다. 환자가 부아가 나서 의원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 기진맥진하여 이불 위로 쓰러지자, 추의는 이제 그 병이 나았다고 말한다.

이런 처방은 病症 자체만 제거하는 對症治療를 경계하면서 원인치료를 지향하는 한의학의 가치관과는 멀어 보인다. 의원이 행한 것은 성행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의 막힌 氣를 뚫어주려는 미봉책으로 이해된다. 위 설화는 결국 烈節理念이 매서웠던 전통사회에서 청산과부의 억압된 성욕은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反證하고 있다.

아래 설화에서는, 삼 대째 과부만 사는 집에 태어난 귀한 獨子가 陽氣가 부족하여 병이 나고 말았다.

(18) 삼 대째 과부만 살고 있는 집이 있었다. 이 집에는 삼대독자가 있었는데 (삼대과부가 사는 집에 손자며느리가 낳은 유복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獨子가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다. 명이는 삼대과부가 아들의 성기를 자꾸 만져서 여성의 음기가 들어가 병이 난 것이라며, 양기가 강한 장기짜를 달여서 아들에게 먹여 병을 낫게 하였다.⁴¹⁾

과부들이 품어내는 과도한 陰氣에 둘러싸여서 점점 사위어가는 어린 獨子の 파괴한 모습이 생생하게 서술된다. 화자들은 매우 엄려스러운 어조로, 삼대독자가 과부들의 과도한 남성 선망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사연을 강조한다. 이는 과부들의 은밀한 욕망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질병의 치료란 조화와 평형을 잃은 陰陽을 조정하여 상대적 평형의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이다.⁴²⁾ 의원은 어린 아들에게 장기짜를 달여 먹여서 부족한 陽氣를 보충해주는 것으로 이 사건을 일단 해결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삼대과부의 집에 지속되는 과도한 음기와 결핍된 양기라는 ‘음양의 불균형’ 문제가, 계속해서 삼대독자를 성숙한 남성으로 건강하게 키워내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獨子の 신체적 건강이나 성장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인지적이며 정서적인 부조화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다.

남성이 부재한 공간에서 성장한 獨子는 아버지 그리고 남성의 사회적 역할 모델을 제대로 갖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정서적 결핍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 몰락한 가문을 부흥시켜야 할 삼대독자로서 이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 將棋란 전쟁을 모의한 남성들의 놀이인바, 이 설화는 과부들에게 아들을 남성답게 키워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性は 억압되거나 은폐되기 마련이었다. 여성의 性は 언제나 他者性和 受動性을 통해서 이야기되어 왔으며, 위협하거나 부끄럽거나 불순한 것으로 여겨지기 십상이었다. 여성

41) 『구비대계』1-1, 798면, 초산탕 초하침, 강성도 구연; 『구비대계』7-3, 111면, 삼대과부의 아들 병을 고친 의원, 김경달 구연.

42) 張基成, 정창현 외 옮김, 『한의학의 원류를 찾다: 易學과 韓醫學』, 청홍, 2008, 114-115면.

의 몸은 여성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남성이 부여한 규범을 실현하는 도구로 존재하거나 남성의 시각과 성적 욕망을 매개로 곧잘 대상화되었던 것이다.

치병설화를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치병설화 대부분이 남성화자가 구연한 것이란 점과,⁴³⁾ 치병설화에 등장하는 여성 환자는 예외 없이 출산이나 여성성기 그리고 性的 문제(성욕)와 결부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⁴⁴⁾

이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일반적 질환은 남성인물을 통해 충분히 형상화할 수 있기에, 여성의 생식력(성욕)과 관련된 사건을 다룰 경우에만 여성인물을 등장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남성화자들에게 여성의 몸이란 性的 대상이거나 출산의 도구로 자동 인식되는 경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남성화자들은 여성 환자의 억압된 성적 욕망에 대해서 연민이나 진지한 공감의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대개 웃음을 섞어가며 농담조로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3.4. 지배 권력의 도덕성에 대한 우회적 비판

(20) 수궁 용왕이 뱃속에 질경이 풀이 돌아나는 병에 걸렸다(혹은, 조선의 왕 후가 종아리에 잔대가 올라오는 병에 걸린다). 명의는 백마의 오줌이 질경이 풀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백마의 오줌에 잔대가 죽은 것을 우연히 보고) 백마의 오줌으로 병을 고쳐 주었다.⁴⁵⁾

치병설화에서 천자나 왕후처럼 높은 신분인 사람의 병은 주로 희귀성 난치병으로 설정되곤 한다. 높은 신분의 사람만큼 병도 보통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병만 골라 앓게 되는 셈이다.

43) 한두 명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병설화 전부가 남성화자가 구연한 각편들이다.

44) 치병설화 전체 각편의 남녀화자의 비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광의숙과 이지연의 앞의 글을 참조할 것.

45) 『구비대계』 6-5, 600면, 용왕의 병을 고친 이야기, 이병현 구연 ; 『구비대계』 2-7, 132면, 명의 이경화, 김응화 구연.

위 설화에서는 오행상극의 원리에 따라 강한 것을 누르고 약한 것을 북돋아 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음양오행 생리모형이 깨진 상태를 질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⁴⁶⁾

* 五行歸類 藏象體系(『黃帝內經·素問』「金匱真言論」)⁴⁷⁾

五行	五色	五味	五臟	家畜
木	청색	신맛	肝	닭
火	적색	쓴맛	心	양
土	황색	단맛	脾	소
金	백색	매운맛	肺	말
水	흑색	짠맛	腎	돼지

용왕의 뱃속에 자라나는 푸른색 질경이풀이나 왕후의 종아리를 타고 올라오는 잔대⁴⁸⁾는 오행 가운데 木에 해당한다. 또한 白馬는 오행 가운데 金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金克木의 원리에 의거하여 질경이풀을 제거하는 약재가 되는 것이다.

(19) 명나라 황태후(대국천자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뱀인 병이었다(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서 구렁이 허물을 쓰게 되었다). 천자는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구렁이를 아무도 못 보게 하고는, 조선에 의원을 보내줄 것을 청하였다. 허준이 뱀혀 중국에 갔지만 병을 고칠 방법을 알 수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꿈에 유의태가 나타나 황태후의 병은 일찍 과부가 되어서 생긴 상사병이므로 黃狗의 신 천 개를 먹이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대로 하여 병이 나았다.⁴⁹⁾

46) 위의 책, 205면.
 47) 張基成, 정창현 외 옮김, 앞의 책, 132-133면.
 48) 썩떡잎식물 초롱꽃목 초롱꽃과의 여러해살이풀. 연한 잎과 뿌리를 식용으로 사용한다.
 49) 『구비대계』 4-4, 173면, ‘군’(君) 칭호 얻은 허준, 장성준 구연 ; 『구비대계』 4-5, 708면, 대국왕비 병 고친 의원, 최갑순 구연.

여성화자가 치병설화를 구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위 설화를 구연한 최갑순은 천자의 어머니가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서 구렁이허물을 쓰게 된 것으로 서술한다.⁵⁰⁾ 이에 반해 남성화자는 황태후의 병은 억압된 성욕 때문에 생긴 것으로, 陽氣가 盛한 동물로 대표되는 누렁개의 생식기를 그것도 천 개나 먹어야 치료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여기서 구렁이는 황태후의 억압된 性的 욕망의 화신이며, 여성의 성적 욕망은 죄로 규정되고 있다.

치병설화에는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비판의식이 드러나고 있음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지적되어 왔다.⁵¹⁾ 황태후의 병은 지배층의 탐욕과 도덕적 부패가 지닌 심각성을 고발하는 상징적 修辭로도 기능한다. 설화에서 구렁이가 된 어머니를 천자가 숨겨야 하는 것은, 지배자로서의 권위가 실추되어 권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렁이의 자식인 천자는 말 그대로 ‘사람도 아닌 것’이 되는 셈이다.

최고 권력자에게 숨겨진 심각한 非理를 아는 것은 자칫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일인 동시에 엄청난 사회적 책임을 떠맡게 되는 일이기도 하다. 허준이 황태후의 병을 고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최고의 의원인 上醫는 바로 나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인 것이다.

- (21) 중국 천자가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대로 따라 말하는 병에 걸렸다. 명의가 천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명의가 천자 앞에서 약성가를 불렀다. 천자는 그 약성가를 그대로 따라 불렀는데, 그 중에서 따라하지 못하는 약 이름이 있었다. 그래서 명의는 그 약을 달여 먹여서 병을 낫게 하였다. (『구비대계』 6-5, 424면, 허준선생의 의술, 임일록 구연)

설화에서 최고 권력자가 앓는 병이라는 소재는 흔히 사회의 부패나 세계

50) 『구비대계』 4-5, 708면.

51) “황태후나 천자 대비가 반사반인에 걸리거나 구렁이가 되는 병은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뱀이나 구렁이는 혐오스런 동물이다. 민중에게 인식되는 궁중의 왕족여성들은 고귀함과 지엄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인식으로는 욕망과 음모로 가득 찬 탐욕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중의 내면의식이 질병에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꺾의숙, 앞의 글, 81면.

의 타락을 드러내기 위한 은유적 장치로서 나타난다. 천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주체적 판단력과 지도력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한다. 통치자의 건강이 국가사회의 건강과 類比的 관계로 이해되던 전통사회에서, 천자의 병은 곧 국가에 닥친 엄청난 變故를 상징하고 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여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병적 사태를 목격하면서, 백성은 이 혼란한 상황을 치유하고 교정해줄 의원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임금의 병을 고치는 의원의 역할은 타락한 사회의 도덕성을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사회개혁가의 역할과 유비적 관계로 이해되는 것이다.

4. 마무리

치병설화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원들의 다양한 양태가 나타난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인간의 운명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면서까지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의원의 면모를 볼 수 있다. 또한 病症에만 주목하지 않고 환자의 삶 전반을 통찰함으로써 환자의 개별성과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의 자발적 치료를 유도하는, 무엇보다 환자의 고통에 진정성을 갖고 귀 기울여주는 의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⁵²⁾

이런 인간미 넘치는 의원의 모습은, 환자의 얼굴보다는 컴퓨터 화면과 각종 첨단의료장비가 분석한 검사결과지를 더 오래 들여다보는 현대의학의 진료실 풍경이나, 표준화되고 규범화된 처방과 약물복용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아련한 향수마저 불러일으킨다.⁵³⁾

52) “환자들은 의사와 동반자 관계가 되기를 원하며, 의사가 자신의 해부학적 이상만이 아니라 고통 받는 영혼에까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환자들은 의사와 자신의 관계가 상업화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환자와 의사가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의사가 자신들에게 애정 어린 치료예술을 펼쳐주길 원한다.” 버나드 라운, 서정돈·이희원(옮김),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 몸과 마음, 2003, 11-12면.

53) “의사는 환자 앞에 나타나 정작 환자와 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슬한 검사결과

효율성 제고와 기업의 이윤확대라는 자본주의적 가치가 의료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현대사회에서, 환자들은 이런 시대조류에 저항할 힘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약탕기에다 명의의 이름을 써 붙이고 맹물을 달여 먹던 민중을 연민의 시선으로 치유하던 명의의 따스한 손길은 현대인들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

치병설화는 仁術을 펼치는 의원들의 도덕성과 가난한 이에 대한 보살핌을 강조한다. 그런가 하면 은폐되고 억압된 여성의 욕망을 노출시킴으로써 음양의 失調라는 삶의 부조화와 불균형이 지닌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배층의 도덕적 부패와 세계의 타락상을 고발하기도 한다.

서양의학은 “사람이 앓는 병”을 보고 한의학은 “병을 앓는 사람”을 본다고 한다.⁵⁴⁾ 치병설화는 인간의 병을 보기 전에 그 인간의 삶과 마음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은 온 우주 삼라만상, 인간사회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인간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만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수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병을 진단하게 된다. 그래서 나도 결국은 흰 가운을 입은 분석 과학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환자가 자라온 환경도, 체질도, 성격도 별로 필요가 없었다. 기계로 치러진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는 과학적이 아니어서 쓰레기통으로 향해야 했고, 검사결과와 환자의 고통이나 호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정신병이라는 편리한 진단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마중기, 『의과대학이 문학을 만나는 길 -미국 의과대학 교육과 문학의 역할-』, 『의학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2004, 31면.

54) “한의학은 병을 앓는 사람을 보고 서양의학은 사람이 앓는 병을 본다. 한의학은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질병의 象을 관찰하고 서양의학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병소와 기전을 관찰한다.” 張基成, 정창현 외 옮김, 앞의 책, 205면.

참고문헌

- 강신익, 「앓과 삶으로서의 몸 : 동·서 의학에서 바라본 몸」, 『과학철학』 6집, 한국과학철학회, 2001, 51-73면.
- 강신익, 『몸의 역사 몸의 문화』, 휴머니스트, 2007, 3-239면.
- 강진욱,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1983, 593-610면.
- 곽의숙, 「한국의료설화 연구」, 동의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논문, 2008.
- 구현희 ·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명의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 16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379-415면.
- 김명수, 「구비명의전설 연구」, 경산대학교 석사논문, 1997.
- 김시천, 「감각이란 무엇인가 -동양철학적 접근-」, 『시대와 철학』 18집,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7, 491-519면.
- 김시천, 「양생의 이념 -고대 동아시아 의학에서 몸의 발견과 한의학의 탄생-」, 『시대와 철학』 19집,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 353-384면.
- 김인락 · 홍원식, 「동양의학의 생사론 연구」, 『대한원전사의학회지』 3집,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989, 1-150면.
- 김호중, 「서에 유성룡의 의학 분야에 대한 인식」, 『역사교육논집』 33집, 역사교육학회, 2004, 63-83면.
- 류성민, 「종교적 질병 치유의 사회·문화적 의미-한국종교의 치병의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5집, 한국종교학회, 2004, 1-30면.
- 마중기 외, 『의학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2004, 5-263면.
- 변정환, 「치료의학으로서의 동양의학」, 『동서의학』 13집,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1988.
- 손정락, 「신뢰와 건강」,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1집, 한국심리학회, 2005, 85-95면.
- 송재영, 「이지적 성질에서 살펴본 “동양의학”」, 『창조교육의사상과실천』 1집, 창조교육학회, 2005, 453-460면.
- 원광대학교 부설 한국전통의학연구소 기초의학연구부 편, 『韓醫學概說』, 영림사, 2007, 3-230면.
- 이강욱,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육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176-216면.
- 이경미, 「韓·中·日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뱀」, 『식당논총』 46집, 석당학술원, 2010, 123-158면.
- 이경희, 「문헌에 나타난 명의설화의 유형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 이부영, 『한국민담 속의 질병과 치유 -분석심리학적고찰-』, 『심성연구』7집, 한국 분석심리학회, 1992, 1-26면.
-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월인, 2006, 10-320면.
- 이인경,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2008.
- 이정숙, 『고려시대 전염병과 치병의례』, 『이화사학연구』 34집, 이화사학연구소, 2007, 87-130면.
- 이지연,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병관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인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엮음), 『인문과학, 인문의 창으로 본 건강』, 휴머니스트, 2008.
- 인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엮음), 『인문과학, 고통! 사람과 세상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8.
- 인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엮음), 『인문과학, 21세기 한국 사회와 몸의 생태학』, 휴머니스트, 2009, 5-220면.
- 정민성, 『우리 醫藥의 역사』, 학민사, 1990, 11-347면.
- 최종성, 『儒醫와 巫醫 -유교와 무속의 치유-』, 『종교연구』 26집, 한국종교학회, 2002, 151-174면.
- 한덕웅, 『신체질병에 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 건강』 5집, 한국심리학회, 2000, 24-42면.
- 한덕웅, 『한국의 전통의학 사상에서 정서와 신체질병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집, 한국심리학회, 2001, 1-22면.
- Anne Hunsaker Hawkins 외, 신주철·이영미·이영희(공역), 『문학과 의학교육』, 동인, 2005, 5-223면.
-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옮김,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13-248면.
- 버나드 라운, 서정돈·이희원(옮김),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 몸과 마음, 2003.
- 에드워드 콜럼, 예병일 외(옮김), 『의학의 과학적 한계』, 몸과 마음, 2001.
- 에릭 J. 카셀, 강신익(옮김), 『고통 받는 환자와 인간에게서 멀어진 의사를 위하여』, 들녘, 2002.
- 임은, 문계곤 역, 『한의학과 유교 문화의 만남』, 예문서원, 1999, 1-344면.
- 張基成, 정창현 외 옮김, 『한의학의 원류를 찾다 : 易學과 韓醫學』, 청흥, 2008, 4-508면.
- 하야시 하지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철학분과·동의과학연구소 옮김, 『동양의학은 서양과학을 뒤엎을 것인가』, 문사철, 2008, 7-328면.

A Study on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Korean Remedy Folktales"

Lee, In-gyung

The Remedy Folktales reveal the pain and fears of diseases that men of old times always suffer in their lifetime, and desires to get away diseases. This study tried to analysis the literary features and socio-cultural implications of the Remedy Folktales, which show the public consciousness of disease and remedy in traditional society. Eventually it tried to grasp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Korean Remedy Folktales."

In the stories, the features of the doctor and his remedy for the sick are shown in various and symbolic fashions. Some doctors tries to adapt themselves to nature's law and human's destiny, in saving one's life. Other doctors have been embodied as humanitarian persons who exercise humane medical practises. Such as, they show their compassion for and console the mind of the sick, before care about the illness of the patient itself. The good doctor has a insight into his patient's character and lifestyle, and cures the patient individually and carefully on the basis of the data. In this case, the patient's self-treatment is emphasized as well.

It is discussed that doctor's sincerity was more important for curing patients than his medical skills, and diseases could be cured only on mutual trust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And the Remedy Folktales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for the warm-hearted doctors who demonstrate humane medical services in the various remedies. The good doctors show medical skills are used as means for practicing perfect virtu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explored the symbolism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the disease, according to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陰陽五行說)." The stori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alance of yin and yang, which exists on all things in heaven and earth. And they give us a severe warning

about the great imbalance between yin and yang such as sexual disharmony. Imbalance of yin and yang is very dangerous and undesirable situation that upsets the social order and personal life. Especially, the diseases of the governing class are interpreted as the signs of moral degeneracy and the social corruption. The stories tell us that the best doctor is who cures the social diseases, as well as the body's illness.

Key words : Korean Remedy Folktales(치병설화), doctor, diseases, medical treatment, sexual disharmony,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陰陽五行說).

접수일자: 2011. 3. 30 심사기간: 2011. 3. 30~2011. 5. 20 게재결정: 2011. 5. 20
